

편집인의 글

국내외 편집위원들의 협력과 기여 덕분에 올해 <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> 제 4권을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먼저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.

올해 우리 저널의 주제는 “지역 문화생태계의 강화와 활성화”입니다. 그것은 2023년 7월 7일에 열렸던 진주 창의도시 국제 포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 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 창의도시들의 문화정책과 문화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우리는 창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.

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저널에서 실린 논문들은 문화생태계의 개념과 적용, 린츠, 성북구, 마테라 등의 지역 문화생태계 분석,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박물관의 역할, 문화생태계 구축을 언급하는 UCLG의 문화 21 플러스를 논의합니다.

이 권에서의 토론도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, 한국의 전주와 진주, 해외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벨라렛과 나이지리아의 비다를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 저널에 참여해주신 저자분들과 토론의 패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17개 도시들이 창의도시의 활동 소식, 문화유산, 인터뷰, 리뷰 등의 섹션에 기고해 주셨습니다. 우리는 각 도시들의 수고에 대해 포칼포인트와 기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저는 저널에

참여하는 도시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이 저널이 우리 서브네트워크의 공식 매체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.

우리는 이 저널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지식, 경험,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또한 우리 저널이 창의도시 활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저널을 간행하는 데 정신적,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과 진주시에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.

내년에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개최되는 연차 회의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.

편집인 **정병훈**